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19강,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응, 고린도전서 7:7b-40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응, 고린도전서 7:7b-40
입니다.

글쎄요,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토론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노트 팩 번호 10에 있으며, 노트의 92페이지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페이지의 맨 아래, 실제로 아래로 2/3 지점에 있으며
, 번호 2a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a절까지 기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7b절에서 2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Talb
ert의 분석이 있는데, 상상할 수 있듯이, 보셨듯이 그는 이런 카이아즘을
좋아합니다.

A, 각자가 신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소수는 두
번째 부분에서 a와 b 뒤에 작은 별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부분의 일부이며, 여러분에게 할당된 선물의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보시다시피, 선물, 선물, 저는 미혼 과부에게 말하고, 결혼한 불신자에게
말하고, 그 다음 중간은 주님께서 결혼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글쎄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러한 카이아즘에 대한 합법성이 있었습니다.

그 구전 문화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중 앞에서 말하고 자료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한다면 그들의 개요를 위의 내용에 맞출 수 있지만, 저는 문단 줄을 따라 좀 더 전통적인 개요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곳에서 나오지만 구조 면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7b와 8~16에서는 제가 결혼의 신성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1b와 1c에서는 미혼자와 과부는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개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2a에 있습니다. 들여쓰기와 컴퓨터 파일의 종이와 공간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왼쪽 여백으로 돌아갑니다. 2a는 결혼이고, 바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규범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b는 7b에서 16까지의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그럼, 여기 7장과 7절이 있습니다. 7절의 시작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저와 같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7절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여기 있는 원본 NIV는 원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2011 NIV는 이전 문단과 함께 7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밋게 말해서, NRSV도 똑같은 일을 하고, 아마 제가 개요를 다시 만든다면 똑같은 일을 할 텐데,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위해 이 노트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Talbot이 소개하는 것처럼 다음 작품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각자는 신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선물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혼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적 진술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전과 이후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가고 거기에 들어맞습니다. 그는 이미 은사에 대해 말씀드렸고, 7절 끝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미혼자와 과부는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해야 합니다(8, 9절). 이제 미혼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특정한 경우 미혼자와 과부에

대해 말씀드릴 때, 저는 그들이 저처럼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정욕에 불타오르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창조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특정 진술을 하는 곳입니다. 좋아요, 당신은 나에 대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성경 번역본을 섞어가며, 또한 제 마음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특정 단어를 찾기 위해 제 그리스어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미혼자와 과부는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해야 합니다. 이제, 미혼자와 과부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또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대로 남아라 원칙, 93페이지, 8~16장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바울이 7.7절과 다른 곳에서 선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저는 그 부분에서 생각을 돌렸습니다. 돌아와서 이 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93쪽 맨 위.

폴의 '있는 그대로 유지하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8~16장 전반에 걸쳐 주제로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이 계속되고 당신이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할 때, 특히 이 결혼 생활에서, 재혼하는 것보다 지금의 미혼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보통 더 쉽다는 것입니다.

노인 사역은 현재 미국에서 큰 이슈입니다. 인구의 가장 큰 통계가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많은 부부가 은퇴를 하고, 그중 한 명은 은퇴한 후 꽤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글쎄요, 폴은 말하겠죠. 글쎄요, 배우자가 죽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그는 실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의학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은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죽고 아내가 남겨진다고 합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여성은 좀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세 자녀를 두었다고 말해요. 글썄요, 이걸 보지 않았다면, 인생의 흥미로운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 아이들은 엄마가 재산과 유산을 어떻게 할지 걱정해요.

그게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실한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시작하고, 심지어 아이들도 그 교제를 장려한다면, 어머니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선택한다면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유산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목사들이 노인이나 그 누구에게나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재혼을 생각할 때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과부가 된 후 결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에는 기능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재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때, 그는 도덕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재혼하지 않는 것이 기능적으로 편리하지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면 재혼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편리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삶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했습니다. 미혼자를 뜻하는 단어는 agamois 인데 , 거기의 ga에 악센트를 붙인 것입니다. 그 단어는 또한 남성 과부에게도 적용됩니다.

과부를 뜻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본문에 있지만, 미혼이라는 단어와 분리된 남성 과부를 뜻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문제는 미혼으로 번역된 첫 번째 용어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의미에 따라 문맥적으로 매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혼 남성인가요, 아니면 미혼 기간인가요? 이 맥락은 분명히 과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남성 과부와 여성 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첫 번째 요점입니다.

미혼이라는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이 장에서만 나타나고, 그 의미는 7장 8절과 7장 11절에서 다양합니다. 한 번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마도 미혼 남성이나 과부 남성을 지칭하지만, 이혼한 여성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7장 11절에서 남편이 떠난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7장 32절에서는 독신 남성을 지칭할 수도 있고, 7장 34절에서는 독신 처녀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있고, 문맥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혼은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부, 이혼자, 버림받은 자, 결혼한 적이 없는 자. 워더링턴은 이것을 미혼자, 특히 과부에게 번역하기로 선택했으며, 따라서 그 의미를 과부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것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표면적으로 의미를 내주지 못합니다. 많은 저명한 평론가들은 이 용어가 홀아비, 즉 과부의 남성 대응자를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논리적으로 매력적이며,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균형 잡힌 쌍을 제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과 그 다양한 범주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는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모든 독신 및 과부 범주를 미혼자라는 설명이 없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엉뚱한 태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부 남자와 과부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제게는 타당해 보입니다. 바울이 7-8절에서 제가 말했듯이, 자신을 미혼 범주에 두는 것인지, 아니면 과부 범주에 두는 것인지 말할 때, 우리는 바울이 결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결혼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창의적 구성이지만 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직접적인 텍스트는 없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 장로였고, 아마도 바리새인이었고, 장로들에게 기대되는 규범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들에게 기대되는 유대인 규범이었습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미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과부였을까요? 그의 아내는 죽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신자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버렸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해설자들처럼 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 읽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가 우리에게 말했더라면 쉬웠을 것입니다. 7-9는 은사가 없는 홀아비와 과부가 재혼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맥락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번인 7-9의 사용은 성적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게헨나에서 불타오르는 것은 랍비의 생각이었지만, 많은 독신 사제의 비극적인 역사를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과부로서 재혼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또는 재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면, 로마 교회나 독신 사제가 있는 기독교 종교 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의 열정을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뉴스에서 독신 생활에 문제가 있는 또 다른 추기경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은 특히 지난 2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괴롭혔지만 동시에 뉴스에 나와서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남미의 로마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독신 생활을 선물로 지지하고 재혼할 선택이 아닙니다.

재혼은 과부가 된 사람들에게는 표준이지만,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나이 든 사람들, 즉 80대와 90대에 재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혼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섹스를 위해 재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외로워서 재혼합니다. 그들은 동반자를 원하지만, 노인 커뮤니티의 목사라면 그것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흥미로운 시나리오지만 재혼은 괜찮습니다. 사실, 특히 젊은 홀아비와 홀아비의 경우 재혼이 일반적인 가능성이 큼니다. 저는 목사였던 한 저명한 인물을 알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신학교 교수였고, 그의 아내가 죽기 전에 그는 안수받은 장로가 아내가 죽으면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매우 강하게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쩌면 몇 년 후에 그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바꿔야 합니다.

규범적인 항목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관련된 항목일 때, 우리가 어떻게 시멘트에 견해를 설정하는지 조심하십시오. 홀아비 상황에서 결혼과 재혼은 표준입니다. 7.9에 J. Edward Ellis가 저널에 쓴 기사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을 위해 나열했습니다.

그는 Talbert, Fee, Wetherington, Furnish가 모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엄숙해야 한다는 바람이나 심지어 애정 어린 바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7장을 독신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 구절로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7장을 해석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부가 되거나 아내가 죽은 후에 결혼하지 않는 것의 우선권, 영성, 더 나은 판단에 대한 증거 구절이 아닙니다. 창조된 규범은 결혼이며, 누군가가 떠난 후에 어떤 이유에서인가 창조된 규범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규범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면에서 도전적이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을 남용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93쪽 2c 하단의 10~16절에서 결혼은 영구적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은 10절에 나오는 도미니칼 전통입니다. 7-10.

미혼자에게, 나는 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 이제, 갈랜드의 섹션 구분이 유용한 이유는 그가 그것이 새로운 섹션이라고 말하고, 나는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SV에서는 심지어 구분되어 있지만, NIV는 이 문단을 위해 더 작은 부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NIV의 문단인 10절과 11절에서는 결혼한 자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지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10절과 11절을 저는 도미니칼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도미니칼은 예수님의 전통, 아버지의 전통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7, 10, 11에서 바울은 아내에 대해 먼저 언급합니다. 이것은 7장의 다른 본문에서 그의 패턴을 역전시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끌어낸 밑바탕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도미니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칭하는 라틴어 방식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부부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서에서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복음서는 매우 얇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서 전통 중 가장 순수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사용하는데, 마태는 이 영역에서 도미니칼 전통에서 간음을 제외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태와 예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더 규범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예외가 재혼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것이 이혼의 근거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3부작 시리즈의 세 번째인 7장에서 이야기할 주제이고, 저는 거기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지만, 당장은 10절과 11절은 매우 절대적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아니요, 결혼하고 이혼했다면 다시 결혼하지 마세요. 그것이 복음 전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은 예외라고 말할 것이고, 이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예외인 곳은 오직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뿐인데,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도미니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칭하는 라틴어 방식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부부에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서 전통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사용합니다.

마태오의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것은 이 조항이 성적 죄로 인해 재혼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예외라기보다는 이 조항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 중 하나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성적 부도덕을 이혼의 일반적인 근거로 이해했다면 고린도전서 7장이 그것을 언급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을 것 같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것을 고수합니다. 그는 이상을 고수하고, 이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는 바울의 설명을 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제 도미니코 전통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해야 합니다. 그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데,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12절에서는 주님이 아니라 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이 권위 있는 구절이라고 말했지만, 12절과 그 이후는 제 의견이고 권위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좀 멍청한 짓이겠죠, 그렇죠? 그가 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할 때, 나, 주님이 아니라, 그는 도미니코 전통을 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은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12절 이하에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인용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내가 어떤 권위로부터도 이 구절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서 이 구절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매우 조심하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 그것은 어떤 것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도미니코 전통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인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여기서 인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예요 . 조심해서 쓰세요.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녀를 이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절대적인 진술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당신이 그들과 결혼한 것과 관련하여 이혼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아닙니다 .

불평등한 명에, 흔히 언급되는 대로, 당신은 피해야 할 것이지만, 이미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어떤 수준이나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인 측에서 이혼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없애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를 들어 헤어진다면, 그것은 그녀가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헤어진다면, 그녀는 결혼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하며 , 남편은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 10절과 11절에서도 그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결혼한 사람들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론 끝.

별거가 일어나면 재혼하지 말라. 토론 끝. 그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혼 구절에서 절대적인 진술을 잘 나타낸다.

그건 꽤 절대적이예요. 그건 현재 기독교 문화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거기에 있어요. 당신이 처리하세요.

저는 세 번째 부분에서 이 중 일부에 대해 조금 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그 문단의 끝, 94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그 끝에서 바울이 성적 부도덕을 이혼의 일반적인 근거 로 이해했다면 , 여기가 그것을 언급하기에 완벽한 곳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예외 조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을 주었고, 그것이 마가와 누가가 예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유일한 곳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입니다. 사실, 실례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는 두 개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풀어서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12절에서 16절,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혼합된 관계에서도 결혼의 신성함을 확인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녀를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그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믿었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들은 더럽혀질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거룩합니다. 알겠습니다.

12에서 16까지는 어때요? 15에서 16까지 읽는 게 낫겠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형제나 자매는 구속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함께 있으면 당신의 영향력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는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간증을 통해 구원으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이건 꽤 간단하고 모호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해석적 복화술을 해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혼과 재혼의 영역에서 성경을 남용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세요.

이제, 여기서 이것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더 생각해 봅시다. 12절에서 14절까지-바울이 주님이 아니라 나를 사용한 것입니다.

7:12와 13은 결혼의 유대감이 어떤 영적인 이유로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1에서 7까지 분명했지만, 다시 분명해졌습니다. 당신이 신자이고 불신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이혼하고 신자를 찾을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파트너와 구원받지 않은 파트너가 가장 큰 영적 불일치를 반영하지만, 여전히 이혼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평등한 멍에 결혼은 소위 영적 이유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개종이 불평등한 멍에 결혼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머물러라. 당신은 영성을 사용하여 그 결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다른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학대 문제, 배우자의 위험 등등.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폴은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목회 사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유명한 결혼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 일부는 남편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남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녀는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는 골프장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그의 골프장에서 플레이하곤 했습니다. 골프장은 여기 있었습니다.

내 집은 여기 있었고, 교회는 여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교회에 갔는데, 항상은 아니었지만 자주 왔습니다.

나는 가서 얼굴이 파랗게 질 때까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가 긴 것처럼 그것에 대해 솔직했습니다.

그는 강박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없었지만, 아내가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일요일에 골프장을 단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리고 가끔은 그녀와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글썄요, 저는 수십 년 후에 그 목회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다시 갔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온갖 이야기가 있죠.

스토리는 본문의 권위가 아니지만 사실은, 당신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하는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은 교회로 그들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래된 죄인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것저것으로 그들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볼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떠나는 것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꽤 흥미로운 상황을 몇 가지 보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만의 삽화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결혼을 능가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결혼입니다. 토론은 끝입니다.

거룩함의 규범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바울이 더럽힘의 은유를 역전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5장과 5-6장에서 그는 나쁜 누룩에 대해 말했습니다. 6-15-17장에서 그는 나쁜 누룩에 대해 말했지만, 지금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결혼에서 그리스도인 배우자 덕분에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다는 누룩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실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비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법의학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능적입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학적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는 연합에 의한 거룩함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심지어 로마서 11장에도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가 이런 진술을 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 즉 14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생기는 축복은 직접적인 수혜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불평등한 명에 결혼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거나, 혹은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던 시기에 그 안에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당신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토론은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은 그 안에 있습니다. 머물러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당신의 파트너가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자신의 선과 가능한 구원을 위해 거룩함의 환경에 있는 것은 특권이지만, 개인적 믿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결혼은 신성한 제도입니다. 바울의 이 주장, 즉 율법적 유형의 주장은 혼혈 결혼의

합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원 자체의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문구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을 알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특권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혼합 결혼을 충족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면 유지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불평등한 멍에를 기독교인과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를 어긴 것이고, 결혼의 신성함, 결혼이 만들어내는 친족 관계를 어긴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에 따르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95쪽.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한 사람은 신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결혼한 부부를 상담할 때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결혼에 대한 당신의 지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평일에 교회에 난입한 불신자 남편이 당신이 서재에 있는데, 일요일에 사업 파트너들과 할 일이 없다고 몹시 화를 내며 난입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아내가 교회에 가고 싶어하고, 가끔 교회에 가라고 고집하며, 가끔은 내 사업을 위해 교회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내 집에 와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들어와서 당신에게 엄한 소리를 하며 이 문제의 원인을 당신 탓으로 돌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할 거야? 그 남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그는 작은 남자고, 너는 큰 남자라고 말하고, 너한테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할 거야. 그럼, 선생님, 그 여자랑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할 거야? 어떻게 처리할 거야?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말해 줄게. 네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은퇴했어, 별로 신경 안 써.

놀림. 내가 언급한 그 사람과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했을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이해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아내와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허락이 있으면, 저는 두 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시점에서 그는 매우 행복할 겁니다. 그는, 오, 응,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의 아내와 회의를 하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편이 사업 회의를 할 때, 그가 말했듯이 정말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주 한다면, 그를 존중하고 여기 있지 않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목사님, 일요일에 와서 하나님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썄요, 당신은 일주일 내내 매일 하나님을 보잖아요.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학대가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별 문제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나는 그저 결혼과 바울이 이 장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그녀에게 그와 함께 가라고, 그 점에서 그를 존중하라고, 솔직히 말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하고 싶어.

당신은 변화를 위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기쁠지도 몰라요. 그리고 감히 그녀의 남편은 충격을 받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때로 충격은 사람들의 귀와 눈을 뜨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집에 가서 나중에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회적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요. 결혼 생활을 잘 하게 두세요. 결혼 생활을 장려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실제로 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굳어지고 실제보다 더 경건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그 상황에 들어올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갖게 됩니다. 결혼은 주장된 영성을 이깁니다.

이 구절을 정직하게 읽고 그 사실을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이 구절은 배우자 학대를 은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남자가 아내를 때렸다면, 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남편이었고, 부양하고, 사랑하고, 가끔 교회에 오긴 했지만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상식을 좀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귀를 열고 이런 것들에 대해 순진함을 버리는 것을 멈추면 어떤 조언을 해줍니다.

더욱이 2E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만이 떠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믿는 자가 머물고 믿지 않는 자가 떠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 어디에도 믿는 자가 떠나기로 선택했다는 진술이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불신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는 15장과 16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믿는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불신자가 떠나고 싶어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관계를 떠나면서 희생자가 되는 압력에서 믿는 사람을 해방합니다.

이 본문에는 몇 가지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NASB에서, 이번에 인용한 것을 주목하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면 떠나게 하세요. 형제나

자매는 그런 경우에 속박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로 부르셨습니다.

ESV, 그러나 믿지 않는 파트너가 헤어진다면, 그렇게 하라. 그런 경우, 형제나 자매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평화로 부르셨다.

NASB와 ESV의 차이점을 주목하세요. NASB는 이런 경우의 속박에서 문맥적 진술을 도입합니다. ESV는 당신이 노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신이 그들을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당신이 재혼할 자유가 있다는 의미로 암시적으로 확장했을까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재혼을 끌어들이고, 저는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NIV가 원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나면, 그렇게 하게 두세요. 믿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그런 상황에서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NASB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신은 우리에게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2011년판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지금까지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16절.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할지 아내를 구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여기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15절. 좋아요, 네,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면 그렇게 하라. 형제나 자매는 그런 상황에서 구속되지 않으며, NIV 원본과 매우 유사하다.

보세요,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묶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지만 적어도 신자가 자유롭게 놓아두고 일어나도록 허용하지만, 상황이 좋을 때는 일으키거나 시작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좋아요, 분리 또는 떠나는 그리스어 단어는 파피루스 결혼과 이혼을 위한 결혼 계약에서 흔히 쓰이는 그리스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어휘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명령 모드로 설정됩니다. 그 또는 그녀를, 믿지 않는 자를 분리시키십시오.

다시 말해, 풀은 꽤 강합니다. 그는 그들이 갈 거라면, 가게 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머물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의무적인 생각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그들을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풀의 첫 번째 선택은 그것을 고수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갈 거라면, 그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회전을 할 필요는 없다. 형제와 자매는 여기서 구체적인 라벨이다.

형제 자매는 그들을 머물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묶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묶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읽은 많은 곳에서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재혼으로 확장했지만, 지금은 재혼에 대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혼과 떠남에 대한 글이지, 그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묶이지 않은 것은 맥락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묶이지 않은 것은 이 특정 글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결혼을 회복하고 그들을 머물게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 생각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둘째,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평화의 마무리 진술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합리적인 노력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싸우거나 기동할 의무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결혼 생활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수준, 터무니없는 수준 또는 절박한 수준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묶이지 않은 것이 재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종종 그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묶이지 않은 것은 당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여기서의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재확인한 도미니칼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왜 묶이지 않은 것이, 야호, 나는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유행에 뛰어드십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심하세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납니다. 17~24장에서,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의 원칙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7장 17, 20, 24절에서 있는 그대로를 강조합니다.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원칙으로 사용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원칙은 실용적으로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남는 것은 양보입니다. 결혼이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혼하고 싶지 않다면 그대로 남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적고 이슈가 적습니다.

풀은 있는 그대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이 아니라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원칙에서 당신은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열정으로 타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적 열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파트너를 갖는 것, 또는 동반자를 갖는 것에 대한 열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페이지를 내려다보니 여기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걸 끝내고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96페이지까지 봤어요.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평소보다 조금 더 길어질 테니까 7장에는 4개가 아니라 3개의 단원이 있어요.

좋아요. 7장 마지막 부분, 25절에서 40절까지. 당신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아이스크림 장수와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온 건 처음입니다. 저는 거의 달려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당신을 여기 두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가져와서 당신을 위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머물 것이고, 저는 이 장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미혼자에게 한 바울의 조언. 그리고 25절과 40절의 균형.

25절, 처녀에 대해서는 명령이 없습니다. 40절,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있는 그대로 지내면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혼과 기혼에 관한 것입니다. 좋아요, 그만. 계속합니다.

약혼한 자에게는, 즉 약혼한 자에게는, NRSV의 25절의 문자적 번역입니다. 이제, 처녀에 관해서는, 저는 주님의 명령이 없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권적인 전통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진술의 마지막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조언을 하고 있지만, 그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조언이지만, 반드시 규범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NIV 35를 봅시다. 나는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25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35를 읽었는데, 25, 실례합니다. 이제 처녀에 대해, 저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은 없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내립니다.

새로운 NIV 2011은 일반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를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곧 여러 방향으로 갈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무슨 뜻일까요? 결혼한 적이 없다는 뜻일까요? 약혼한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누군가와 약혼했을 수도 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의 딸인가요, 아니면 약혼했을 때인가요? 권한의 일부는 미래의 남편에게 넘어가지만 섹스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 시점에서 누가 처녀를 통제할까요? 누가 여자를 통제할까요? 아버지인가요, 남편인가요? 어떤 문화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혼한 사람에게는 약혼한 그리스어는 처녀와 같고, 대부분의 번역은 그대로 두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결혼의 전망에 흥미를 더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지만, 결혼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이 글을 큰 소리로 읽어야겠습니다.

7:25. 이제, 처녀에 관하여, 나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주의 자비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판단을 내립니다. 현재의 위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기의 전체 맥락을 흥미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시오.

이 장은 전체에 흥미를 더할 수 있지만, 확실히 이 문단에 흥미를 더합니다. 잠시 후에 현재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아마도 바울의 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예수가 언제든지 온다는 바울의

종말론적 관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과 상관없이, 종말론적 계획의 다음 사건이 예수가 온다는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환난 전이나 황홀경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런 종류의 이슈, 즉 휴거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종말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현재의 위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빌로니아 포로로 잡혀간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정말 복잡해질 테니까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나 해줄게. 재밌지는 않겠지만, 부탁을 하나 해줄게.

그리고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시대가 아니고, 예레미야를 인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당신을 때리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멘토로서 위기가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말이 곧 밝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가질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고, 아이를 갖는다 해도 키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는 절대적인 '아니오'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건화되었습니다. 그는 조언을 다루고 있으며, 그의 조언은 그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옵니다.

좋은 말씀이었지만, 우리는 종말이 조금 더 길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위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에게 맹세할 때, 해방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약혼했다면, 계속하세요. 그런 의무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다면 아내를 찾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고린도에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집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약혼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바울은 솔직히 이 문제를 매우 부드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하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나는 여러분을 아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위기에 따른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론이 온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듯이 살아야 한다. 애통해하는 자는 없는 듯이 살아야 한다.

행복하지 않은 듯이 행복한 사람들. 소유할 것이 아닌 듯이 무언가를 사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마치 그것에 몰두하지 않은 듯이 사용하는 사람들.

이 세상은 지금의 형태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적 기대는 이것을 엄청나게 흥미 있게 합니다. 글썄요, 우리에게도 흥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글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말한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울이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적 종말론이 당신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규범적 성경적 서사를 능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거라면, 결혼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그 결과를 겪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처녀가 결혼하게 하고, 아버지가 처녀를 결혼하게 하고, 약혼한 남편이 결혼을 이행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힘들 거라는 게 폴의 말입니다. 그는 그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에 정직할 뿐입니다.

저는 40년을 더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에 대해 그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 저는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흥미로운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 아무도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97페이지 상단. 이 섹션의 대상은 처녀들 입니다 . 파르테노스는 처녀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처녀를 의미할 수도 있고,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처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미혼 여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는 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처녀를 의미하며,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NIV는 처녀의 문자적 번역을 제공하고 ESV는 약혼한 해석적 번역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이 구절에서 ESV는 NIV보다 더 역동적입니다.

공식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동적으로 동등하게 되어 약혼했다고 부릅니다. 그것은 해석입니다. 7:25에서 처녀의 의미는 매우 논란이 있지만 736과 38은 분명히 약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25에는 736에서 38까지 다른 더 광범위한 범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위 그룹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작은 하위 그룹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벤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7:25에는 7:36~38과 다른 더 광범위한 범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약혼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처녀를 설명하는 제안이 적어도

네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처녀 딸인가요? 그는 그녀를 결혼을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인가요? 이제, 이것이 본문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린도의 하위 집단 중 하나가 이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만들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결혼했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제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레위인의 결혼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친척이 형의 아내가 불임이기 때문에 그 아내와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구약성서적입니다.

아니면 약혼한 약혼자 커플일까요? 아버지와 딸, 숫자 2, 영적 결혼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해설을 보면 꽤 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견해를 주장합니다. Garland는 가장 그럴듯한 선택은 처녀가 약혼한 여성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라고 관찰합니다.

아마도 약혼한 사람들은 현재의 곤경과 아마도 섹스와 결혼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결혼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곤경이 지역적 기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터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곤경이 지역 사회에 대한 지역적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신학 사전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곤경이 곧 다가올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Barrett, Conzelman, Garland, 그리고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그것을 종말론적 문제로 봅니다. 지역적인 도전을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바울이 제안한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729-31은 또한 이 맥락에 강한 종말의 풍미를 줍니다. 고려해야 할 질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종말을 기다리는 시간적 측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같은 조언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공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규범적 삶의 사건과 바울의 임의적 종말론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임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언제 역사 속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천 년 후나 다음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항상, 항상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기대와 함께 살지만, 마치 관리가 일어날 시간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 관리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동등하게 유지됩니다. 마치 시간이 있을 것처럼 당신의 삶을 관리하세요.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 관리하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긴장 속에 둡니다. 그것들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의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Talbot은 바울이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응한다고 봅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을 읽게 할 것입니다. 저는 2a 중간의 98페이지로 넘어갈 것입니다. 폴은 현실 세계를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치를 가져오고, 그는 29-31에서 이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런 현재의 곤경 때문에 힘듭니다. 약혼한 처녀에 대한 특별 이슈. 36절과 38절에서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글썄요,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

Ken James 버전은 일반적인 의미로 virgin이라고 했습니다. NASB는 심지어 역동적이어서 virgin daughter라고 했습니다. NRSV는 역동적이어서 fiance라고 했습니다 .

보세요, 그들은 통역을 하고 있어요. 역동적인 것은 통역적 번역이에요. 기능적이지만, 완전히 공식적이지는 않아요.

ESV, 약혼자를 향해. 신영어성경, 독신 생활의 동반자. 그게 그 하위 그룹인 듯.

NIV, 그가 약혼한 처녀에게. 2011, 같은 방식. NIV에는 그를 그의 딸이라고 부르는 각주가 있는데, NASB와 같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그의 약혼자라고 부르는데, 약혼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저 버전들을 보세요. 다 제각각이에요. 도전적인 구절이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구절이에요. 제가 대신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당신이 생각해야 할 일이고 겸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자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설명할 수 있고 너무 많은 긴장 없이 맥락에 맞는 두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다음 선택을 하거나 사람들과 가르치는 순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순간은 우리가 영감받지 못한 해석자이고 하나님께서 종말에 우리를 위해 몇 가지를 명확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문학적 기반을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방대합니다.

736에는 두 개의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if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7:36을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절들을 조금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길어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7:36, 만약 누군가가 그가 약혼한 처녀에게 명예롭게 행동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특정 계층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if는 무엇입니까 ? 여기서도 모두 문맥에 따른 것이지만, if는 누군가가 걱정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로 추정됩니다. 그게 그 특정한 if의 수사적 본질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if, 그리고 그의 열정이 너무 강하다면, 그건 가정된 if가 아닙니다.

만약,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의 열정이 강하다면 말입니다. 단어 if는 네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중 세 가지는 특히 성경에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조건. 가정한다면, 가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미래의 어느 때라도 가정한다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건 3등급 조건이에요. 만약 미래에 언제라도. 당신이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저는 성경의 if에 대해 한 페이지 전체를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호기심을 느끼고 스스로 알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어 박사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당신의 참고문헌에 있는 보이어 박사님, 보이어 박사는 그레이스 저널에 if라는 단어와 if라는 절에 대한 기사를 몇 개 썼습니다. 마음껏 찾아보세요.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7:38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구절을 봅시다.

여기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든 해낼 거예요. 응, 7시 38분까지 올게요.

그러므로 처녀와 결혼하는 자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처녀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옳은 것과 더 나은 것.

better는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어 형용사의 의미 범위에는 higher in rank, prefer, better, 그리고 때로는 superior가 포함됩니다. 형용사로서, more useful, more advantage, or better입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 또는 비교형일 수 있고, 원하시면 간단한 형용사 또는 비교형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사, 무언가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 텍스트에서 비교는 도덕적이지 않고 기능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98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용어는 도덕적 기준에 따른 비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도덕적 기준에 따른 비교는 아닙니다. 꽤 중요하지 않은가요? 도덕적 기준에 따른 비교가 아니라 기능적 기준에 따른 비교입니다.

바울은 의미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현재의 괴로움과 그 결과로 생길 문제 때문에 기능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풍미가 있습니다. 핏은 독신 생활이 한 상황이 다른 상황보다 본질적으로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핏이 그렇게 말할 때, 바로 바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쯤은 그걸 알게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더 나은 것과 기능적으로 더 나은 것은 다릅니다. 폴은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것이고 현재의 괴로움이 그것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글쎄요, 7장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7장에 대해 몇 시간만 할애하면 됩니다. 39절과 40절의 맨 마지막에 과부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7장을 마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은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음은 결혼의 유대감을 해소하지만, 그는 주님께 속해야 합니다. 그녀는 오직 주님께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에 따르면, 그녀는 그대로 지내면 과부가 되어서 행복할 것이고, 저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과부에게 그것에 대해 어떤 강박관념도 주지 않습니다. 젊은 과부들은 재혼할 것이고, 아마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나이 든 과부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무분별하게 끌려들지 않아야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허용됩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덜한 것은 아니지만 실용적으로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올바르게 읽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에 도달하면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7장은 도전이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이 장의 배경이 되는 문헌은 엄청납니다. 이 장에 대한 저널 기사를 잔뜩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언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틀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7장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미묘한 부분을 꼬집어냈습니다. 이 장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다음 강의에서 다룰 것이고, 그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성경에서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핸드아웃의 99페이지에서 시작하며, 이것이 115페이지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약 16~17 페이지를 드릴 텐데, 이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우리의 설정에서 꽤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혼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이지만, 주로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훑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읽어야 하며, 저는 여러분이 이 거대한 주제를 빠르게 움직이고, 강조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사역 전문가라면, 여러분은 이것을 훑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 확신과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하려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강의에서 뵈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응, 고린도전서 7:7b-40 입니다.